

제주 잠녀·일본 아마 의미 찾기 계속

해녀박물관 제2회 일본아마대집합축제 참가...미에현 시마시청서 사진전
지난해 이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등 가치 찾기 위한 논의 이어가

등록 : 2010년 09월 26일 (일) 17:36:18
최종수정 : 2010년 09월 26일 (일) 17:36:18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제주 잠녀와 일본 아마(海女)의 의미 찾기가 지난해에 이어 계속된다.

해녀박물관(관장 함천보)은 지난 25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일본 미에현 시마시청에서 제주 잠녀의 생생한 삶을 담은 사진전을 열고 있다.

30점의 전시 사진 속에는 구좌읍 하도리 잠녀들이 해산물 채취 장면과 판매 모습, 무속신앙과 의례 등 4계절이 고스란히 옮겨졌다.

이번 사진전은 일본 시마시에서 열리고 있는 '제2회 일본 아마 대집합 축제'와 연계한 것으로 눈길을 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미에현 토바시에서 열린 제1회 일본 열도 아마 대집합 때도 제주 잠녀를 초청했는가 하면 '해녀 선언'을 통해 '한국 제주도 잠녀와의 연대도 돈독히 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전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

이번 역시 잠녀 대표와 해녀박물관 관계자 등이 '제주 잠녀'를 알리기 위해 축제에 참가하고 있다.

기계적 도움 없이 맨 몸으로 물 속에 들어가 전복과 소라 등 해산물을 채취하는 잠녀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에만 분포하고 있다.

물질 작업을 통해 생겨난 제주 잠녀와 일본 아마의 무형문화유산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양한 자신들만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일본 아마들 사이에서도 자신들의 원조를 '제주도'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제주잠녀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당위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아마대집합 역시 '어떻게 전승 보존할 것인가'의 해법을 찾는 과정으로 두 번째 연결고리를 통해 공동 노력의 새로운 방식을 찾아낼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일본 아마대집합 축제는 북쪽으로는 이와데현에서부터 남쪽 구마모토현까지 아마가 활동하고 있는 10개 지역을 아우르는 행사다. 일본 아마의 반수 이상이 활약하고 있는 토마와 시마 지역을 주축으로 아마 문화를 집대성하고 있다.